편집후기

인류에게 신앙이라는 형태가 구체적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정착적인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라 한다. 농작물의 성장이 자연의 갖가지 계절적 변화에 좌우된다는 데서 자연의 섭리에 대한 외경심이 생겨난 탓일게다.

현대를 사는 지금의 우리들이 비록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는다해도 계절의 변화앞에 항상 겸허함을 갖게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름아닌 가을이어서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나 보다. 독자여러분께 사실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도전의 시이다.

가을구름 막막하고 온산은 고요한데
소리없이 단풍져 땅을 붉게 물들였네
시냇가에 말 세워 돌아갈 길 묻나니
이 몸은 한폭의 그림속에 있어라.

정말 그림같은 시이다. 〈鄕〉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은 변화를 위한 도전과 그에 따른 반응의 연속이라고 한다. 도전은 항상 새로움을 전제로 하나 가끔 낡은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배웠다.

계간지 「방재와 보험」의 발간작업은 이미 한계절 이전부터 진행됐음에도 시차와 무딘 감각으로 계절에 맞추지 못했고, 이런저런 사유로 다소 지체된 점 독자제현에 사고드린다. 좀더 분발하여 약속된 날짜에 인사드릴 것을 다짐하며 깊은 심호흡을 해본다. 〈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분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꽁트 등 문예작품

□ 보낼 곳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

防災와保險 1989/가을호
계간 • 비매품
〈통권 제43호〉

등록/ 바-827호(1973 10월 11일)
발행/ 1989년 10월 1일
인쇄/ 1989년 9월 25일
발행겸 편집인/이상규
인쇄인/성전문화인쇄/강재수
사진식자/두람기획
발행처/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직통 780-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